

● 백기완

# 〈항일민족의 밤〉을 다시 새기노라

— 박정희 유신독재 타도싸움의 문학적 물살

\*백기완님은 일생을 민족통일운동, 민주화운동에 바쳐왔다. 지금은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제철마다 내는 책 『노나메기』의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1969년, 정세판단서가 나오던 이야기

1969년 새아침이 밝아오던 무렵이다.

그때는 박정희 분단 군사독재가 그네들의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무턱대고 잡아다가 무지무지하게 패죽이고 나간이(병신)를 만들고, 그야말로 개망나니짓을 마구잡이로 놀아나고 있을 때다. 그래서 자못 으시시하기도 했지만 박정희라는 한 독재자의 그 파릿한 거짓됨과 그 얗싸한 사갈짓(범죄)이 날날이 까밝혀져 더욱 거센 민중의 분노와 항쟁이 치솟고 있던 그런 때였다. 그 까닭은 이러했다.

첫째, 박정희는 단순히 총칼을 들어 정권을 뺏은 고약한 군인이 아니라 잔인무도한 일제 황군 출신이요, 그것도 우리의 항일 반제투쟁전선에 칼을 들이대던 악덕 친일 민족반역자라는 사실이 온누리에 드러나 있었다.

둘째, 8·15 뒤에는 남로당 군인 조직원으로 있다가 그 조직전모를 폭로, 수많은 사람들을 총살맞게 하고서는 박정희 저 혼자만 살아남으로써 끔찍한 인간적 등뺨기(배신자)임이 드러나 있었고,

셋째, 그의 범죄는 4·19 뒤에 일어나던 참민주화 바람과 자주통일의 어기찬 불길을 총칼로 압살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았다. 그보다도 한 술 더 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살살이 파괴하고 미·일 독점자본한테 우리 자주통일의 물질적 텃밭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반통일적 민족반역자임이 드러나고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 분단 군사독재는 보수 정치권의 권력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갈데 없는 타도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그 사갈(범죄)구조의 청산은 세계사적 해방의 명제로 또렷해지던 것이 1969년이다.

바로 그러한 때 한편으로는 끔찍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마침내 박정희는 대통령을 두 술(번)밖에 못해 먹게 되어 있는 헌법을 세 술도 해먹을 수 있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른바 삼선개헌 음모다.

이와 함께 또 이런 소문도 나돌고 있었다.

박정희와 권력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권 한 자락이 박정희와 몰래 뒷거래를 하여 그의 삼선개헌 음모를 때려부수려는 민중결기를 내재적으로 분열 파괴하려는 응큼한 술책도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이른바 재야인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몰래몰래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뜻을 주고 받을 때 나는 이런 말을 했었다.

“삼선개헌 음모설을 놓고 우리들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성격부터 올바르게 더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박정희는 그저 한낱 군사독재자가 아니다. 바로 ‘분단 군사독재자’라는 것. 따라서 박정희는 분단현실을 영구지배하려는 미·일 독점자본의 앞잡이 군사 파쇼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파쇼란 무엇이던가. 보나마나 타도의 대상이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뺐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이다.

느닷없이 계훈제 선생이 찾아와 내가 누워있는 방안을 두리

번두리번 휘젓더니 내뺨는 첫마디다.

“백소장, 이것도 집이오? 이거야 뽕뽕 언 동태가 와도 또다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얼음 동굴이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지 않소?”

그러더니만 컷뽕을 한다. 어제 내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었으면 한단다. 이를테면 종합적인 ‘정세판단서’를 꾸며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어제 모였던 함석헌, 장준하, 계훈계 선생과 몇몇 재야인사, 그리고 반박정희 연합전선 형성을 전제로 정치인도 몇 사람 자리를 같이해 내 의견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좀 놀라면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가 물으니 계 선생의 대답이다.

하나, 윤보선 선생이라고 했다. 그 분은 65년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분쇄싸움 때 정치인으로서 가장 확실한 모습으로 앞장 서신 분이다.

둘은, 양일동 선생이다. 그 분은 젊은 날 일본 유학시절 항일 싸움에 가담했다가 감옥에서 고생한 적도 있는 분이란단다.

셋은, 김재광 선생, 그 분은 윤보선 선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일본의 재침략 때려 부수기에 나섰던 분이다. 그때는 일제 재침략 분쇄싸움을 놓고 민족의 통일적 이익이나, 의회주의냐는 논의가 치열했었다. 기회주의자들은 의회주의 수호를 앞세우고, 민족적 양심들은 민족의 통일적 이익을 목숨처럼 앞세우고, 따라서 그때 국회의원직 버리기는 박정희 분단 군사독재를 반민족적으로 몰아치는 데는 가장 적극적 행동이었는데도

민족의 이익보다는 꺾대기뿐인 의회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둘러대면서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분쇄싸움을 야릇하게 분열 약화시키던 변절자, 기회주의자들이 오죽 많았는가. 그런데 김재광 선생은 민족의 통일적 이익이라는 오늘의 역사적 고뇌와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하고, 또 그 밖에 몇 사람은 지금 고르고 있는 참이란다. 다만 내일 저녁까지 ‘정세판단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 달란다. ‘정세판단서’를 내일 저녁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나는 시간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이런 걱정은 스스럼없이 내뱉었다.

이 참에 삼선개헌 음모설을 올바르게 분석 진단하여 그것을 까부수는 길을 더듬는 정세판단서를 만든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나는 보나마나 잡혀가 매맞아 죽는다. 그렇게 되면 나의 박정희 타도 싸움은 단연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니 아주 뒷빠르게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어떻게 믿는가. 따라서 아무나 자리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계선생은 대뜸 좋다고 하고 일어서며 또다시 귀엣말을 한다. 윤보선 선생이 함께 하기로 했으나 워낙 감시가 끈해(심해) 집 밖으로 나오실 수가 없으시단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선생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게 되면 이내 들통날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 대신 부인 공덕귀 여사와 그의 친구 김한림 여사가 오실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떤가고.

나는 그런 분들이라면 좋다고 했다. 그리고 아직은 어둑어둑한 새벽, 골목을 빠져나가는 계선생과는 등을 지고 얼핏 우리집을 나와 재빨리 남산 오솔길을 들었다. 다시 이태원을 거쳐 왕십

리 쪽으로 걸었다.

거기서 찬찬히 돌레를 살핀 다음 몸을 날리듯 어느 더듬한 이층 찻집으로 올랐다. 하지만 찻집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알로는(실지로)는 찻값도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자함이던가. 뻘뻘 뻘뻘 이층 층계를 거쳐 뒤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간판도 번지수도 없는 선술집이 있는데 희한한 집이다.

바닥은 땅바닥, 밥상도 없고 서서 먹는 선반 하나만 덜렁 놓여있는 집이다. 그리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두부 한 모와 막썰주 한 사발을 시켜놓고 마냥 놓고만 있었다.

그 집엘 이따금 들리는 고인한이라는 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나나 다를까. 점심 때쯤 해서다. 언뜻 들어서던 고군이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다른 집으로 옮기잔다. 얼핏 따라나서 점심 때부터 밤 열시까지 꼬박이 퍼마시고 있다가 다시 걸어서 우리 집 골목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부러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달도 하나 해도 하나 / 사랑도 하나 / 이 나라에 바친 목숨 / 그도 하나이런만...”

그때만 해도 박정희 정보원들이 우리집 돌레를 눈싸납게 지킬 때라, 나는 하루내내 술을 먹었을 뿐 아무 것도 아니했었다는 것을 일부러 알리자 함이요, 또 하나는 이제 정세판단서 한 장을 쓴 다음엔 어디론가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대륙적으로 견디어 내자함도 없지는 않았음인지 목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대며 집엘 왔으되, 글을 쓸 책상이 있는가, 엮드려 쓸만한 한뼘 빈 데가 있으랴. 깊은 잠에 빠진 어린 것들 셋은 서로 뒤엎켜 발가락을 내 코밑에 대거나 맡거나 꼬박껏 밤을 새워 극적거린 ‘정

세판단서'란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

삼선개헌 음모란 무엇인가

첫째, 지금 미국은 월남전에서 아주 비참한 패배의 간들(운명)을 맞게 되어 있다.

아울러 우리 민중의 항쟁으로 미국의 앞잡이 박정희 분단독재까지 위기에 몰리고 있어 박정희마저 쓰러질 것이면 미국의 아세아 전선이 한꺼술(번)에 무너지는 꼴이다.

여기서 미국은 박정희를 살리고자 하는 흉악한 계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은 곧 박정희의 집권 연장욕과 맞떨어져 꾸며지고 있는 범죄적 발상이 이른바 삼선개헌 음모다.

그렇다면 삼선개헌의 기본 성격은 무엇일까. 미국과 박정희가 합작해 만들어내는 두술(번)째 군사반란 음모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모든 힘을 다해 때려 부숴야 한다.

둘째, 박정희의 삼선개헌 음모는 또다시 한반도에 침략의 마수를 드리운 일본독점자본의 요구를 아주 가놓고 관철해 주려는 일본과 박정희의 국제음모임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독점자본이 또다시 한반도에 쳐들어 온 지는 불과 4년밖에(1965) 안됐다. 그런데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다리를 놓았던 박정희가 대통령직 임기에 쫓겨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일본의 야욕도 함께 파탄나는 것이라 무슨 수를 써서든지 박정희를 올려세우지는 것이요, 그것이 박정희의 집권 연장 계략과 맞떨어져 나온 것이 삼선개헌 음모다.

그렇다면 삼선개헌이란 무엇일까. 오늘의 한국 사회 경

체제, 그 비자주성의 귀결이다. 다시 말해 미·일 독점자본의 수탈구조인 분단독재 체제의 국제적 강화 음모다. 따라서 삼선개헌 음모는 첫발자욱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삼선개헌이 감행된 뒤에는 이 땅 분단의 영구화를 노리는 미국과 일본의 야욕에 따라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가 다시금 고개를 들 것이 뻔하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힘을 다 끌어내 삼선개헌 음모 때려 부수기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룩해 내야 할 것이다.

셋째, 박정희의 삼선개헌 음모는 바로 박정희의 지난날의 끔찍한 죄악이 다시 저질러 지는 인간범죄의 극악의 증상을 알아야 한다.

일제 때는 일제의 앞잡이짓을 했고 8·15 해방 뒤에는 박정희가 깡겨있던 남로당 조직을 폭로, 저만 살아나고 다른 사람 수백명을 죽도록 하는 인간적 배신을 했고, 이어서 4·19를 이룩한 민주·해방·통일의 역사 물살을 총칼로 작살내던 그 뻔뻔스러운 박정희의 범죄, 그 폭거만행의 다시 드러남이지 판계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8·15 때부터 이 땅에 마주한(대한) 식민지인 분단체제를 그네들의 앞잡이 이승만을 통해 강행해 왔고, 이 참에도 그 민족 말살의 범죄를 맡아줄 앞잡이가 필요한테 그게 누구일까. 바로 친미친일 민족반역자 박정희다. 따라서 박정희는 삼선개헌으로 멈출 인물이 아니다. 미·일 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영구집권을 노려 어떤 반역, 어떤 기회주의, 어떤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독재의 형식을



끊임없이 탈바꿈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망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과 일본이 농지를 잃을 것이요, 그 분단이 현실로 있는 한 그것을 강화시켜줄 미국·일본의 대리인 자리를 박정희는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팎의 정세가 분단의 장기화를 강요하는 한 박정희는 곧 분단지배의 권화(權化)요, 영구독재의 명령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삼선개헌 음모 때려 부수기는 바로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를 때려 부수 참된 해방통일을 이룩할 첫발이라, 각계각층 온 뜻과 양심을 모두 내대 반드시 쳐부셔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 ‘정세판단서’ 읽기가 끝나자 공덕귀 여사는 고개를 천정으로 들더니 “박정희가 세 번을 해먹고도 또다시 영원히 해먹을 야욕을 채울 거라고?” 그러시면서 울고, 김한림 여사는 혀를 차고, 양일동 선생은 “정확한 판단이군” 하고 딱 한마디 하시고.

## 두 술째 정세판단서

아니나 다를까. 삼선개헌이 강행되고 나서 3년도 채 안되었는데 느닷없이 7·4남북공동성명이 나왔다.(1972. 7. 4)

그 내용을 한마디로 쫓쿠면 이런 것이다. 남과 북은 이념과

제도를 넘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런 것이었다.

이런 7·4성명이 나오자 시민사회는 한 권으로는 놀라고 또 한 권으로는 헛갈려 갈피를 못잡고 있었다.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뺏자마자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한다 했고, 이어서 북쪽을 무력으로 초전박살을 내야 할 주적으로 몰아쳐왔다. 그런 박정희가 느닷없이 이념과 제도를 넘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북쪽과 합의를 하다니 도저히 앞뒤가 안맞으니 아니 그렇겠는가. 더구나 7·4성명 뒤 박정희 추종세력들의 개소리, 막소리, 헛소리는 말만 들어도 배알이 뒤집힐만 했다.

무슨 개수작을 나발됐느냐. 이제부터 박정희는 분단을 지키는 독재자가 아니라 통일시대를 열어젖힐 민족의 지도자임이 드러났다는 투로 터무니없는 조작을 나발대는 것이었다.

이에 빨이 돋친 재야 몇 사람은 나에게 또다시 정세판단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이 참에 나온 7·4남북공동성명은 한마디로 박정희가 끝내는 우리 겨레의 통일염원을 팔아 영구집권을 피하려는 사기극이다. 그렇지만 이 사기극은 그 사기극을 만든 주역 박정희 스스로를 꾀꾀 묶는 그야말로 이중적 모순의 희한한 위장전술이다.

이보다 더 곧바로 말하면 7·4성명은 갈대 위에 메밀꽃을 묶어놓고 이것이 바로 메밀꽃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아니 영경귀 위에 강낭콩을 붙여놓은 꼬라지와 똑같다. 어째 그런가.

첫째, 박정희가 강행해온 이른바 조국근대화는 우리 민

죽경제의 텃밭을 미·일 독점자본에 몽땅 예속시킴으로써 자주통일의 물질적 기초를 사그리 잿더미로 만들어왔다. 그런데도 입으로는 자주통일이라니 한마디로 섯빨간 거짓말이다.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매듭도 없는 날판(생판) 거짓말이다 이 말이다.

둘째, 우리 겨레에게 분단이란 우리 겨레 수십만년 역사상 처음 있는 치욕이다. 따라서 그것은 백번을 말을 뒤집어 해도 침략상황이다. 때문에 그 침략의 원흉은 마땅히 까부쉬야 할 던적(병균)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거꾸로 분단을 최고의 가치로 거짓꾸미면서 모든 해방통일 지향적인 것, 이를테면 민족적인 것, 진취적인 것, 창조적인 것, 그것들의 자유를 몽땅 교살·학살·말살해온 민족반역자요 역사반동이다. 그런 반역자가 민족 자주통일의 대원칙에 서명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웃음을 모르는 개구리가 다 웃을 일이요, 노래밖에 모르는 매미가 다 노여움을 참지 못할만치 소름끼치는 일이다. 가짜치고도 첫판부터 가짜다 이 말이다.

셋째, 남의 나라를 짓밟고 남의 나라의 허리를 뺏지르는 만행을 예술적으로 꼴꾸어 말하면 무어라고 해야 할까. 썩어 문드러짐, 다시 말해 저도 썩고 남도 썩히는 썩물(부패)이다. 썩어문드러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나라를 짓밟아 허리를 꺾을 수가 있단 말인가. 따라서 그 썩물의 뿌리는 바닥부터 뒤엎고 그 부패의 던적(병균)은 흔적마저 날날이 불을 질러야 할 최악이요, 악덕이다.

그렇다. 분단은 던적이요, 악덕이다. 따라서 분단을 최고

의 가치로 강제하고자 우리의 온갖 창조적 자유를 말살해온 박정희는 던적 그 자체요, 나아가 그 안팎이 팍삭 썩었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러한 때 7·4성명은 무엇일까. 박정희가 민족적으로 돌아왔다는 잣대(증거)일까. 아니다. 그러면 박정희가 그의 범죄에 마주해(대해) 조금치라도 뉘우치고 있다는 잣대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더냐. 바로 썩물 박정희 발악의 소산 그 발가벗은 모습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박정희는 뻔뻔스럽게도 그 썩은 칼에다 통일이라는 겉옷을 입혀들고 나선 꼴이다. 그 썩은 칼로 참된 해방과 참된 통일의 목숨들을 난자해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영구집권을 노리자는 것이 바로 7·4성명이다. 때문에 이제부터 참통일의 바람, 참통일꾼은 도리어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7·4성명 뒤에 도사린 박정희의 끄찍한 음모와 위장전술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그러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7·4성명은 그 글귀로만 보면 민족통일의 대원칙이 아로새겨져 있기에 그것은 박정희의 거짓됨을 푹푹 묶은 오라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우리들은 도리어 그 대원칙을 배신하거나 후퇴시키지 못하도록 박정희의 발목을 묶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참된 자유회복 운동이요, 참된 자주성 되찾기 싸움, 다시말해 참된 해방만이 통일의 알짜(실체)라는 것, 그것으로 박정희 분단 군사독재를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세워야 한다. 그 심판대 위에서 참통일과 가짜 통일을 낱낱이 가

려야 한다.

그리하여 엄청난 민족의 역량을 참민주 통일이라는 명제로 통일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할 것이면 7·4성명이란 음모는 도리어 참통일 세력의 결정적 승리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 참에 나온 7·4공동성명은 가장 결정적 뜻이 또하나 있다. 그것은 통일문제를 앞에 놓고 통일적 인간과 반통일적 인간을 가를 거울이라는 것이다. 그 거울에 비추게 하노라면 곧 가짜와 진짜가 가려질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민주역량과 민족적 의기를 모두 동원해 박정희를 통일이라는 거울 앞에 밀어붙여야 한다. 그 명제는 입때껏 분단을 강요해온 침략자와 그 침략자의 앞채비 독재와 싸워온 역사적 줄기를 오늘에 들이대는 것이니, 이런 과제 앞에선 한치도 헛갈릴 것이 없고 한 발자욱도 머뭇댈 것도 없다. 그저 우리가 해온대로 박정희 분단 군사독재 타도 싸움을 발전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7·4성명의 역사적 귀결이다.

그 자리엔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끼워져 있어 그렇기는 했지만 조용한 함성이 터져났다.

이 참 정세판단서야말로 오늘을 가름할 문헌이라, 그것을 백기완의 작품으로 하질 말고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것으로, 모두가 서명을 하자고 계훈제 선생이 말했고, 이에 따라 서명한 분들은 함석헌, 장준하, 계훈제, 공덕귀, 백기완 이렇게 다섯분, 서명

한 뒤에는 그 문건을 공덕귀 여사가 깊은 곳에 감추고선 자리를 떴었다.(그때 공여사는 재야인사로 참석했었다)

## 세 술째 정세판단서

7·4성명이 있는 뒤 녀달도 못 돼서 유신헌법이 강요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함석헌, 장준하, 계훈제, 백기완 이렇게 넷이서 만났을 때 함석헌 선생이 나한테 묻는 첫마디였다.

“백선생, 거 유신헌법이 대관절 무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온 거요?”

이때 내 대답은 그대로 세 술째 정세판단서가 되고 말았다.

나는 먼저 장준하 선생부터 말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우선 나부터 말을 하란다. 나는 다시 계훈제 선생한테 말을 하라고 했는데 계선생도 똑뜨름(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유신헌법, 그것은 법이 아니다. 이 벗나래(세상)의 글이나 날말이란 그런 범죄를 감싸려고 증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신헌법이란 무엇이냐. 박정희가 만든 늪이다. 한 술(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그 늪에 박정희 자신이 빠져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 혼자만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물귀신처럼 통일이라는 명제도 끌고 들어가고, 민주화 명제도 끌고 들어가고, 뒷싸게(심지어)는 온 민족대중들도 끌고 들어가고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려 드는 것은 도리어 죽는 꼴이다. 늪이란 본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늪, 그 수렁의 바닥을 발각



▲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받고 있는 백기완 선생(오른쪽으로부터 장준하, 백기완, 고영하)

뒤집어 덮어야 한다. 무슨 말이나. 목숨을 걸고 유신헌법의 멸수 (괴수) 박정희와 함께 그 체제 그 안팎의 물리력을 발각 뒤엎어버리는 싸움을 일으켜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은 내가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투의 집권경쟁의 정치싸움이 아니라 참된 해방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반식민지, 반독재 민주화, 해방통일 싸움은 우리 재야가 주도해야 한다 이 말이다.

둘째, 유신헌법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전쟁을 법으로 매듭진 것이다. 다시말해 박정희가 앞장서 미제국주의의 대리전쟁을 이 땅에서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이지 결코 만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란 무엇일까.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무기의 과시적 시험장이 되어 우리 겨레 칠천만은 몰아죽고, 삼천리 아름다운 산과 들은 몽땅 잿더미가 되고, 다만 미국과 일본의 모랏돈(독점자본)만 살찌우는 꼴이 거듭되는 것이 전쟁이다.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박정희의 전쟁 음모에 마주해(대해) 전쟁을 선포해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를 깡그리 뒤엎어 청산해야 한다.”

그러고자해서는 그 전략, 그 실행계획과 아울러 실행방법 따위를 나한테 맡길 순 없겠는가. 내 목숨을 걸고 짜보겠다고 했더니 가장 먼저 좋다고 한 분이 함석헌 선생이었다. 이어서 장준하, 계훈제 선생이 내 손을 굳게 잡아주어 나는 조건을 걸었다. 이 참싸움만큼은 목숨을 걸고 내가 방안을 짜보겠다. 다만 내가 부탁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는가. 이때 모두가 좋다고 해서 내가 앞장서 유신독재 타도 싸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던 때가 1973년 봄이다.

## 새뚝이 작전

그때 시민여론은 이러했다. 느닷없이 박정희가 유신헌법에 따른 독재체제를 강제해 가는 과정에서 도리어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끈매스럽다(심각하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먼저 박정희가 제아무리 유신독재를 욱지르고는(강행) 있지만 시민사회는 하나도 두려워하질 않고 언젠가는 되치고(반격) 나올 낌새로 유신독재를 도리어 우습게 여기는 몰살이 바닥에서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요, 또하나는 그러나 워낙 유신독재가 뻔뻔스럽고 안사이(간사스럽게)하게 욱질러움에 따라 시민대중의 의기가 땅에 깔아앉고 있는 낌새가 아울러 뒤범벅이 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두가지로 맞서기로 했다.



첫째로는 새뚝이 작전이다. 새뚝이라니 무슨 말일까. 제아무리 썩은 늪이라고 하더라도, 그리하여 침묵까지 집어삼킬만치 현상이 교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썩은 침묵의 교착은 딱 한 알 돌맹이를 풍당 던짐으로써 와장창 깨지게 되어 있다. 그 현상태파의 미적 전환의 때박(계기)을 새뚝이라고 하거니와, 바로 그 돌맹이 하나로 그때 그 어마어마한 유신독재 체제의 거짓뼈김(위세)을 깨뜨리자는 새뚝이 작전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던가.

‘유신헌법 개헌 백만인 청원 서명운동’ 이었다.

그 청원에 맨처음으로 서명한 분들이 모두 30명이 되자, 1973년 12월 24일 아침 우리들은 종로 기독교청년회관(YMCA) 2층 회의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자들에게 청원운동의 뜻과 함께 서명하는 방법과 서명한 것을 모두는 방법을 아울러 소개하였다.

그때 기독교청년회관 회의실 문은 내가 앞장서 부셨다. 지금도 그때 그 사갈짓(범죄)은 머리속여 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어찌는 수가 없었음을 털어놓고자 한다. 장소사용 허락을 밟는 절차가 자칫 잘못하면 비밀이 알려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때 청원운동을 발표하던 시기와 청원 서명방법, 그리고 온나라에서 서명한 것을 한 곳으로 모두는 방법은 참으로 기가찼다.

먼저 12월 24일 아침에 청원운동을 발표한 것은 준비가 그때까지 짜임새가 좀 모자랐던 탓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랬다. 12월 24일, 그 날은 무언가 누우침보다는 쉬는 분위기가 드세, 가는 해를 잊어버리자고 술이나 마시게 되고, 그리하여 한 해의 삶이 권태로 빠지는 날이다. 썩어문드러진 미국문화 바람 때문이다. 따

라서 유신독재도 그 탄압의 칼날도 술에 취해 곤두세우질 못할 때라, 그 유신독재를 결정적으로 깬 새뚝이로 청원서명운동을 선포한 것이니 이것은 깜짝 놀랄 기습이요, 따라서 엄청난 충격의 새뚝이었다.

첫째, 박정희의 그 야씨한 정보망으로도 김새를 못차렸다.

둘째, 유신독재가 개헌청원이라는 방법의 하나로 것처럼 결정적 타격을 받을 줄은 미처 몰랐고,

셋째, 맨처음 서명한 30명이 모두 청원운동본부라고 한 것이 그야말로 기가막힌 물살(파문)을 일으켰고,

넷째, 누구든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이 또다시 서명운동본부라고 한 것이 엄청난 썸불(바닷속의 화산, 태풍)을 일으켰다.

보기를 들어 24일 청원운동을 발표하고 이들이 지난 26일 늦은 3시까지 백기완의 벗 한동학, 고인환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받아온 청원서만 50장, 우리 집안에서 받아온 것이 50장, 내 앞으로 곧바로 온 것이 2백장, 모두어 3백장이 넘었으니 그야말로 새뚝이 작전의 성공이었다. 그런 빠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보나마나였다.

## 블림작전

이렇게 새뚝이 작전과 함께 블림작전도 아울러 전개하였으니 블림이란 무슨 말일까.

잘아는 바 블림이란 한 춤꾼이 춤판에 뛰어들면서 외치는 한마디인데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판은 깨고 새로운 판

을 일구는 한마디다. 그 한마디를 외침으로써 주어진 판은 깨지고 새로운 판이 열리는데, 그것은 맨 첫판 작살판으로 내뺀채 죽을 판을 넘고 다시 살판을 거쳐 난장판, 개판으로 죽을 쓰다가 마침내는 맘판으로 하늘을 찌르는 판을 여는 한바탕 큰 굿의 첫소리라.

그렇다고 하면 그 불림은 흔히 놀아나는 ‘녹수청산 지화자’ 일까? 아니다.

오늘의 미·일제국주의가 옥지른(강요) 분단의 현실을 깬 한마디 불림이다. 그것은 어떤 것이던가. 지난날의 피끓는 반제 항일시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 ‘항일민족문학의 밤’을 열자 하고 마음먹었다.

그리고자해서는 먼저 여러 벗들과 함께 벌써부터 꾸려두었던 『항일민족시집』(71년 발행)을 옆차기에 끼고선 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197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제부터 이 땅의 시나 그림들은 쪼매난 흰종이에 기대질 말고 저 넓고 넓은 푸른하늘, 아니 저렇게 열마든지 열려있는 거리의 벽으로 나서야 하질 않겠는가. 벽시운동 말이다. 이렇게 혼자서 흥얼거리다간 돌아오곤 했다.

그러면서 ‘항일민족문학의 밤’은 12월 26일 저녁 6시 을지로 네거리 들머리에 있는 흥사단 강당으로 잡으려고 마음을 굳혀 버렸다. 왜 그랬을까. 12월 25일은 노는 날이다. 따라서 주머니에 든 것이 있거나 없거나 한잔쯤 들이킨 다음날이 26일, 그런 날로 ‘항일민족문학의 밤’을 굳힌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24일도 놀고, 25일도 놀고, 26일은 너무나 놀다가 눈도

마음도 얼얼벌벌할 그때라, 박정희의 감시가 덜 날카로울 거라는 것을 이용하자 함이었다.

둘째, 나 백기완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문학의 밤이나 준비하고 다닌다는 것을 일부러 뺀대(과시)자는 것이요.

셋째, 12월 24일 아침 9시는 벌써부터 유신헌법개정 백만인 청원운동을 발표하기로 몰래 꾀치고 있었으므로 우리들로 보면 새뚝이 작전을 불림작전으로 이어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일테면 유신헌법 타도라는 정치투쟁과 ‘항일민족문학의 밤’이라는 문화예술적 투쟁의 변증법적 통일의 경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홍사단 강당을 빌리고자 하면 그래도 목돈이 드는데 나같은 털털이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남몰래 장만한단 말인가.

옳거나,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하고 나는 우리집으로 쳐들어가 애들 돌반지가 남은 것이 있을 것이면 몽땅 내놓으라고 욱박질러 반돈짜리 금반지 서너 개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그것같고는 안 돼어 시집간 여동생 인순이한테 금반지 몇 개를 또 빼앗아 한축(일단) 문학의 밤을 열 곳을 마련하고는 그날부터 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문인 예술가들을 만나 꼭 함께 해줄 것을 약속받았다.

신경림, 조태일, 박태순, 백낙청, 염무웅, 구중서, 이호철, 김희로, 남정현, 황명걸, 강민, 함석헌, 김규동, 김윤수, 그리고 그때나 이제나 민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노래 <아침이슬>의 알기(주역) 김민기한테 항일투사 우덕순의 「보난대로 죽이리라」

는 시를 작곡해 그날 불러 달라고 해 동의도 받고.

## 장준하 선생의 한바탕 불림

어쨌든 문학의 밤을 열기로 한 그날 저녁 6시가 되기 두어 시간 앞서부터 홍사단 강당의 결상은 모조리 차버렸다. 그래도 밀려오는 사람들은 결상 옆에 끼겨앉고, 무대 위에도 앉고,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층계를 가득 메우고, 그것도 모자라 울지로 네거리까지 이어지던 사람들의 물결.

그들 가운데는 공덕귀 여사, 김한림 여사처럼 할머니도 있었지만 거의다가 젊은 사람들인데 눈들이 초롱초롱하고 가슴을 떡 벌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항일투사들의 시를 칼로 삼아 한판 하자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때 누군가가 북을 치는 것 같았다.

땡! 땡! 땡! 그 북소리는 사뭇 장산곶 마루의 그 북소리라. 가슴이 툭툭 뚫는다. 그래서 내 인사말은 접어버리고 장준하 선생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한 말쑥이 있겠다고 했을 적이다.

뚜벅뚜벅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단상에 오른 장선생은 고맙다는 인사 대신 오늘 이 자리가 ‘항일민족문학의 밤’이라 항일시 한 수를 읊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유신헌법 개헌 백만인 청원서명운동 취지문’을 읽는 것이 아닌가. 이를 앞서 24일 아침에 발표한 바로 그것.

그러니 순수 문학의 밤인 줄로만 알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속았다, 아니 사기맞았다 그랬을까. 아니다. 뜻밖에

도 와... 하는 소리와 함께 강당 안이 술렁술렁, 마치 파업전야를 꼭 빼닮은 거센 물살이 홍사단 강당 밑바닥을 구비칠 때다. 장준하 선생은 또다시 뚜벅뚜벅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서는 항일시 한 자락씩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은 시가 아니라 유신헌법 개헌 백만인 청원운동 서명용지였다.

내 기억이다. 사람들은 그 용지를 받는 때박(순간) 마치 쳐들어온 던적(병균)을 때려 부수러 나아가지는 통지서인 것처럼 한 장씩 받아쥐고서는 장선생과 굳게굳게 잡은 손을 흔들고 또 흔들고.

그야말로 옥지르는(강요되는) 유신독재판을 한사위로 깨고 새로운 판, 민중해방의 판을 일구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 백기완의 불림

새뜩이 작전에 이어 오늘의 불림작전은 성공이구나, 그렇게 울부짖으며 단상에 다시 올라 “항일민족문학의 밤 준비를 하느라 애쓴 여러 예술 문학인들, 또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항일민족문학의 밤을 차림(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적이다.

강당에 켜져 있던 불이 나가는 게 아닌가. 추운 겨울 문들이 푹푹 닫혔으니 밖으로부터 새들어오는 불빛 하나 없어 강당 안은 그야말로 먹물처럼 캄캄하고 확성기도 꺼지고.

바로 그때다. 그때 국무총리 김종필은 텔레비전에 나와 날(생)방송으로 유신헌법을 바꾸자고 개헌청원을 한다니 그것은 나

라의 기강을 뒤흔드는 폭거만행이다, 당장 집어치우라고 협박·공갈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발전소가 잘못돼 서울 장안, 아니 온 나라 골골의 전기가 모두 다 끊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항일민족문학의 밤’을 열고 있는 대성건물 강당의 불만 꺼지는 것이었을까. 대성건물의 전기가 잘못되어서? 아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량이 많아 저절로 꺼진 것이었을까? 아니다. 우리들이 열고 있는 문학의 밤을 교란·파괴 하느라고 박정희가 대성건물 강당의 불만 끈 것이다. 이렇게 여긴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캄캄하지요?”

“네.”

“앞이 안 보이지요?”

“네.”

“하지만 이 어두움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시느라 성냥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네.”

“손가락도 가지고 있지요? 일추(혹시)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으신 분들은 가슴의 염통은 아직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성냥을 꺼내 불을 당기세요. 그 불길을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당기세요. 지금 광화문과 청와대에서도 불이 나가 짙은 어두움 속에 허우적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쩍니까. 우리들의 손가락에 불을 당겨들고 가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불을

밝히려 가자 이 말입니다. 다함께 뻔뻔 일어나세요. 나아가자구요, 나가!”

“와...”

그러자 어떻게 되었든가. 박정희 유신독재의 판, 깨진 건 바로 그 시커먼 분단독재의 암흑이 깨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잣대(증거)로 우리가 청와대로 진격할 거라는 말에 시꺼먹은 박정희 일당은 다시 전깃불을 넣었던 것이다.

## 김민기의 불림

황성기도 다시 들어왔겠다, 뜻있는 시인 작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른 소리와 몸짓으로 항일민족시들을 읊는 모습은 그때의 유신독재를 깨뜨리는 하나같은 불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어떤 이는 이름이 안 밝혀진 항일 반제투사의 시를 흐느끼며 읊고, 또 어떤 이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자못 비장하게 읊어 시가 한낱 피난 정서의 분비물이 아니라 잘못된 제국주의 문명, 아니 폭압적인 분단독재 타파의 미적 창조물로 치켜올리는 모습은 참말로 말로는 다할 수 없을만치 멋드러지고 어덕(위대)했다.

그런 현상 타파의 혁명적 분위기는 시가 그리 많다는 중국에서도 없었고, 구라과 문단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파격의 다락(경지) 바로 그것이었다.

더구나 김민기와 김영동이 함께 작곡한 우덕순의 「보난대로 죽이리라」라는 시는 음악과 문학의 만남만이 아니라 그것들과 역



사적 현장이 결합된 새로운 창조의 세계, 우리 불림이 갖는 실질  
미의 빼어남을 자랑하고도 남았다.

더욱이 그 창작 노래는 전통적인 우리 노래의 품새를 오늘에  
발전시킨 것이요, 아쟁과 해금을 반주로 함으로써 그것은 새로운  
예술적 성취권을 일군 것이었다.

이에 멀미졌음이었을까. 늙으신 함석헌 선생이 뚝뚝 눈물을  
떨구시고, 작가 시인들과 젊은이들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그  
런 것을 보면서 나는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 노여움과 뉘  
우침은 마냥 한갓된 옛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유  
신독재라는 미적 질곡을 한사위로 깨뜨리는 소리없는 아우성 불  
림이라고 발을 굴렀다.(1973. 12. 27자 「조선일보」 신흥범 기자,  
「동아일보」 이부영 기자 기사 참조)

## 우연한 사고처럼 백기완을 죽이려고 한 계획적 막심(테러)

바로 그날 밤 11시 반쯤이다. 박정희의 탄압으로 이화대학 교  
수자리에서 쫓겨난 김윤수 교수(요즈음은 국립현대미술관장)와 함  
께 명동에서부터 걸어서 퇴계로 6가를 거쳐 아무도 없는 으스스한 골  
목 우리집으로 접어들어 올 적이다. 뒤에서 누군가가 저벅저벅 말  
을 건다.

“야 입마, 담배 한 대 주구 가.”

“담배 없는데요.”

“이 새끼, 이거 안들려? 담배 한 대 주구 가랬지 않아?”

그러면서 바짝 다가온다. 나는 가분재기 쭈뼛하고 소름이 끼쳤다. 내가 다 소름이 끼칠만한데 그 호릿호릿한 김교수의 간헐이는 어떠했을까.

그러나 나는 굳게 믿는 데가 있었다. 나는 새뚝이작전과 불림작전을 함께 차름(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유신독재 깨뜨리기는 한낱 양심적 반독재 투쟁만은 아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그렇다. 어기찬 죽음을 다해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여 새로운 해방문명 창조운동이다라고.

아니나 다를까. 놈의 발자욱이 바짝 가까워질 무렵이다. 바로 내 발 앞에 컴컴한 어두움에 어리는 얼음판이 있질 않는가. 내 손바닥 크기 열곱만한 얼음판. 그것을 보자 나는 쥘싸게 그 얼음판을 넘어서면서 의젓이 말했다. “왜 그래?” 그러면서 돌아서는 때박(찰라)이다. 획! 하고 들어오는 주먹을 비끼자 곧 발길이 들어오는 것을 특하고 치니 놈이 그 얼음판에 미약! 하고 넘어진다. 역사의 싸움꾼이 그 때박을 놓칠손가.

그냥 달려들어 그놈의 짧은 머리를 쥐고 한 두어술(번) 세멘 바닥에 짓찼다. 이내 놈의 뉘휘갈이 희멀게진다. 한 술만 더 세멘 바닥에 박을 것이면 아주 갈 것 같아 놈을 일으켜 그놈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어깨를 잡는데 아빨싸 몸이 바위덩이같다. 주머구는 태권도, 합기도, 십팔계를 모두 익혔으되 잘못 익힌 잔인무도한 자객임이 틀림없다.

웁거니,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렇다면 아주 앙짱을 먹여야겠다고 다시 세멘 바닥에 머리를 짓찹으려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툭 친다.

때박 나는 그놈의 발길이 닿을 틈새를 비끼려고 일부러 허리를 쪽하니 앞으로 내밀며 “누구야” 하고 돌다서보니 어깨가 커단 백쇠(순정을 겁탈하는 놈)같은 녀석이 말을 건다. “점잖으신 선생님께서 애들한테… 그만 가보세요” 그러다.

나는 툭툭 털고 일어서며 “이봐, 다 한 통치 자객들이지? 사 람잡는 개백정, 아무튼지 언젠가는 다시 보자구 응? 내 안 비킬테 니까.”

그러구서 집엘 오니 그 추운 밤에도 식은 땀에 온몸이 흘랑 물에 빠졌다 나온 것같다. 김윤수 교수는 그 작은 몸의 살이 행하 니 더 빠진 것같고.

그러나 그런 일이 또 있었다. 그 뒤 사흘 있다가 12월 30일 눈이 펄펄 내리던 저녁이다.

26일 저녁 김종필의 공갈이 안 먹히자 이 참엔 목소리마저 카랑카랑한 박정희의 공갈이 방송으로 응쿠른다. “유신헌법을 바꾸자고? 까불지들 말라. 만약에 더 이상 유신헌법을 바꾸자고 까 불면 몽땅 잡아넣겠다”는 공갈·협박이 방송을 타고 줄줄줄.

그날 따라 눈보라가 그렇게도 드세고 어두움은 깊어가는 밤, 그 소식을 서울의 모든 방송들이 특종으로 나발땀다. 모든 신문 들은 이따만한 활자로 박은 호외를 거리와 거리, 골목골목마다 눈송이보다 더 많이 뿌리고. 그래도 빈주먹밖에 없는 나는 하나 도 두렵지가 않은데 다만 속이 출출해서 못견디겠다.

무엇 줌 없을까. 우리 연구소인 퇴계로에서 장준하 선생과 명동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서니 벌써 명동은 환락가가 아니었다. 비밀정보원, 비밀군인, 정복경찰과 사복차림의 형사 수백명이

질가로 쭈악하니 둘러싸고 우리들을 노려본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더욱 가슴을 떡 펴고 어느 찻집으로 들어가니 김도현, 최혜성, 김정남, 허술, 김영길 등이 모여 앉았지만, 우리를 노려보는 댕뎕이같은 정보기관원들이 손님들보다 더 많고, 이때 누군가가 귀엣말을 한다.

“선생님, 선생님 눈에선 지금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요.”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마 점심을 굶어서 그런가 보지.”

그러면서 김영길씨한테 퇴계로 6가 우리집엘 가서 돈 삼만원만 얻어오라고 했다.

한참만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영길이가 내놓은 돈은 천원 짜리 몇 장과 오천원 짜리를 합쳐 오매 이만원. 그것으로 어물어물 저녁을 먹고 나머지는 장준하 형님하고 나하고 오천원씩 나누어 비상금으로 찢러 넣으면서 말했다.

“형님, 이걸 풀이탈 때(급할 때)만 쓰는 돈, 눈물겨운 비상금이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우리들의 유신헌법 타파운동은 박정희의 어떤 탄압과 협박·공갈에도 굽히질 않고 계속할 것이니 시민 여러분, 우리들을 믿으시오”라고 성명을 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있다가 유신헌법 개헌운동과 유신헌법 개정이라는 말만 해도 15년 징역을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계엄령,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발동되고, 이에 따라 새벽부터 개새끼처럼 끌려가 조사를 받을 적이다.

홀랑 벗겨진 장준하 형님 주머니에선 180원이 나왔다. 180원

이면 담배 한 갑 값이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는 집사람한테 얻은 단돈 5천원, 그때 돈 5천원이면 설렁탕 세 그릇 값이다.

이를 본 수사관이 옹쿠른다. 돈을 다 어디다 숨겨두었느냐. 단돈 5천원으로 어떻게 우리 세력에 대항하겠다는 건가. 네 옷은 어째 입은 것 뿐이냐. 비밀거점이 어디냐. 대라. 대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옹쿠르고 짓모으고 밟는다. 이때 내 대답이, 사람의 옷이란 입은 것 한 벌이면 되질 않는가. 또 자금줄이 어디냐니, 우리 삼천만 민중이 모두 내 자금줄이요, 세계 40억 양심이 모두 내 밑천인데 돈에 마주해(대해) 조사를 하려거든 그들까지 몽땅 조사하라고 했다가 뒷싸게 치도곤을 맞았지만 ‘새뜩이 운동’과 ‘불림운동’은 성공했던 것이다.

다음은 그때 아내한테 보냈던 글월이다.

여보,

저 뻔뻔스러운 험박, 치사하게 공갈치는 박정희의 방송 보고 있수? 지금 내가 있는 이 명동 이름모를 다방 안팎엔 지나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밀정보원, 비밀군인, 전투복 경찰 수백명이 빼곡이 둘러싸고 있구려.

방송뿐인 줄 아시우. 백기완이 잡아가겠다는 박정희의 공갈이 신문 호외가 되어 ping ping 퍼붓는 눈송이보다 더 많이 뿌려지고 있구려.

곧 끌려갈 겁니다. 끌려갈 때 가더라도 저녁은 먹어야 할게 아니우. 영길이가 보냅니다. 돈 3만원만 만들어 보내구려.

여보, 미안하우.

우리들이 잔치를 치루던 날도 눈이 많았지요. 그 몇진 눈의 정경을 두고도 신혼여행을 못가던 것 생각나우.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 먼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하지만 여보, 여보의 사내 이 백기완이는 놈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오.

놈들의 염통 심장부터 까부수러 쳐들어가는 현상 타과의 알기, 새뚝이처럼 주먹을 떨고 있는지라 걱정마시우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거요. 죽더라도 우리 겨레의 안타까운 염원, 해방통일이라는 참 영광, 참 행복, 참 평화를 지고 올 거란 말이오. 그때 우린 딴 건 하지 맙시다. 우리도 한번쯤 나들이를 가잔 말이오. 묵은 나들이 신혼여행이라는 거 말이외다. 그러니까 어디서 꾸어서라도 3만원만 만들어 보내달란 말이오. 배가 고파 죽겠다니까. (완)

1973. 12. 30. 저녁